

전남서남권 지역 경제일지

(2023년 12월중)

12.5	<p>▶ 신안군, 탄소중립을 향한 획기적인 발걸음 ‘첫 탄소 배출권 판매’로 나아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은 지난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연구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신안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12.13	<p>▶ 해남군/농촌 인력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효과 특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특출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의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618명으로 전남 최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해당 국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입국한 근로자는 412명,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인원이 206명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결혼이민자의 분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대거 몰릴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 해남군은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농가와 근로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입국자 중 68명은 지난해 일했던 근로자가 재입국해 기존 농가에 배치될 정도로 농가와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2.5	<p>▶ 영암군 지역사회,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암군 지역사회가 쌀 유통 안정화 등을 위해 숙의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공공비축미 이외에 농가 판매 희망 비 잔여 물량의 지역농협 전량 매입을 결정했다. ○ 2023년 10월 영암 지역 농협은 수매하는 벼의 우선지급금을 40kg당 지난해 5만 7천원보다 높은 6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쌀가격 하락세 지속, 공공비축 수매물량 전년대비 대폭 감소, 민간 쌀 유통업체 비 매입 지연 등의 악재가 겹치며 지역농협은 전년대비 14% 이상 증가한 50,661톤을 자체 매입해 큰 손실이 예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농협의 결단을 이끌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2.14	<p>▶ 전남도, 3조원 규모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무안군을 '세계를 잇는 서남권 관문, 인구 20만 스마트 공항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획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미래산업과 기반(인프라)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한 6대 비전 21개 계획을 제시했다. ○ 먼저 글로벌 물류 중심지의 잠재력을 갖춘 무안군 일원에 6천110억 원을 투자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육성하고, 에너지·반도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는 4천661억 원을 투자해 첨단산업의 투자지로 만든다. 1조 3천700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첨단 농업 융복합 지구 등을 조성하고, 관광·정주·물류 기반(인프라)에 4천86억 원을 들여 광역 사회 간접 자본(SOC)를 대거 확충한다. 또한 관광 산업에 1천99억,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에 4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2.5	<p>▶ 진도군, 2024년 농촌진흥공모사업 선정 54억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이 2024년 농촌진흥공모사업에 선정돼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진도군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 (1)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 30억원 (2) 꿀벌자원육성품종사업 24억원 등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은 토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고체형 미생물을 대량 생산하는 특허기술을 적용해 자동장비 체계 제작·설치부터 준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꿀벌자원육성품종 구축사업은 꿀벌 집단폐사와 질병 발생 빈도가 늘면서 국내 육성 신품종 우수 꿀벌을 집중 증식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12.14	<p>▶ 목포시의 미래경쟁력, 친환경선박이 이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가 국내 최초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 서남권은 국내 연안선박이 집중분포된 지역으로 친환경선박 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어, 목포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4건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기자재 업체들과 협력해 다양한 친환경선박을 개발함과 동시에 남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1)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2)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3)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4)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이 있다.
12.7	<p>▶ 장흥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91억 원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흥군이 30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191억 원을 8,095농가에 지급했다. 이번엔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0.1헥타르(ha) 이상 0.5헥타르(ha) 이하 경작 농가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2017년에서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었다. 	12.14	<p>▶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탁월 특구'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은 지난 11월 29일 중기부에서 발표한 '2023년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완도군의 해조류·전복산업 특구가 총 190개 특구 가운데 '탁월 특구'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는 완도읍 외 11개 읍면에 총면적 4,432만㎡가 해당되며, 특구 내 기업 수는 68개(고용 인원 548명)으로 완도군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90억 원을 투입해 5개의 특화사업과 17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특구 내 기업과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공동으로 해조류를 활용한 화장품 제작과 가공식품 5종 개발, 완도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10여 종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12.21	<p>▶ 강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및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군은 지난 19일,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에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 기금 매년 1조씩, 총 10조원을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 투자계획 등에 따라 평가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 내년에 강진군에서 추진될 2024년도 사업은 (1)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강진 푸소 시즌2(푸소 운영농가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확충, 사의재 푸소 한옥체험 단지 조성) (2)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귀농귀촌인 신규 마을 조성, 정주형 푸소 운영 주택 건축 지원, 인접지자체 연계 및 도농교류) (3) 인접지자체 연계 및 도농교류 사업 등 총 3개 단위, 7개 사업으로 1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12.22	<p>▶ 무안군, 2023년 무안군 일자리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23년 무안군 일자리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월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기준 무안군 내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중 일부업종을 제외한 종사자 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조사항목은 체감경기, 매출규모 및 인건비 현황, 인력수급 현황 등 5개 부분 36개 항목이다. ○ 조사 결과, 무안군의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949개소 중 71.2%가 서비스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건설업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의 올해 전반적인 체감경기에 대한 인식은 전년에 비해 '악화'가 61.5%로 가장 높고, 올해 매출규모에 대한 예상은 전년에 비해 '비슷'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인건비는 전년에 비해 올해 '증가'가 66.7%로 가장 높았다. 내년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27.7%이고, 사업체당 3.9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내년 신규 채용이 없는 주된 이유로는 '정원 충족(72.6%)', '경영상의 사정(14.1%)', '인건비 부담(9.1%)' 등을 꼽았다.
12.24	<p>▶ 전라도, 전략작물 직불금 403억 원 전국 최다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직불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3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사료용 곡물 등을 재배하면 ha당 50만~4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라남도의 전략작물 직불금은 3만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403억원이 지급되며 이 중 동계작물은 2만 6천 명에게 236억 원, 하계작물은 4천 명에게 133억 원을, 전략작물 인센티브로 34억 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 하계 논콩·가루쌀을 재배한 필지에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